

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/05/02

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 - Economic Sentiment Index - (2013년 4월 기준)

우리 국민들은 2013년 현재의 경기를 어떻게 느낄까요? 앞으로는 어떨 것이라고 전망할까요?

한국갤럽은 과거 연 2회 경제지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, 2013년 1월부터는 매월 단위로 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(Economic Sentiment Index)를 제공합니다.

2013년 4월은 그 두 번째입니다.

한국갤럽의 경제체감지수는 현재 경기 평가지수와 미래 경제 상황 전망지수로 구성되며
경제 체감과 연관된 지역, 연령, 직업 등 인구사회적 변인과 함께
주관적 생활수준, 여윗돈지수, 경제정책 우선순위 등을 분석합니다.

조사 개요

1. 조사대상: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
2. 표본크기: 1,214명
3. 조사방법: 휴대전화 RDD 조사
(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)
4. 조사기간: 2013년 4월 22~25일(4일간)
5. 표본추출: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
6. 표본오차: $\pm 2.8\%$ 포인트(95% 신뢰수준)
7. 응답률: 17%
8. 의뢰기관: 한국갤럽 자체조사

주요 결과

- ✓ 현 정부의 경제 분야 우선 해결 과제는?: '일자리 창출' 45%, '물가 안정' 39%
- ✓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?: '나쁜 편' 77%, '좋은 편' 4%
- ✓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?: '좋아질 것' 38%, '나빠질 것' 19%로 낙관이 비관보다 많아 두 달 연속 전망지수 하락(129 → 121 → 119)
- ✓ 주관적 생활수준은?: '상/중상층' 10%, '중층' 37%, '중하/하층' 52%
- ✓ 여윗돈이 생긴다면?: '빚부터 갚겠다' 31%, '저축/투자를 하겠다' 5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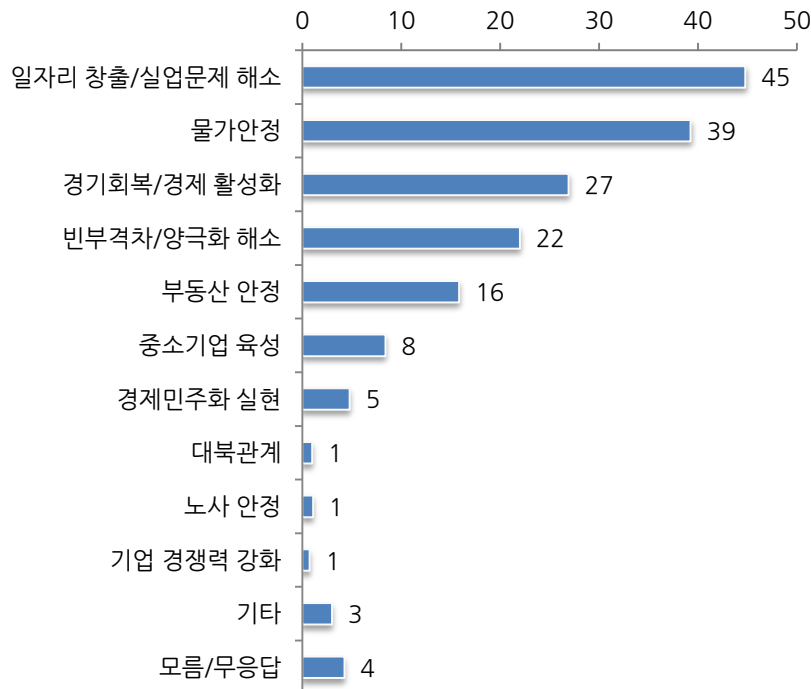
현 정부의 경제 분야 우선 해결 과제는?: '일자리 창출' 45%, '물가 안정' 39%

우리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과제는 '일자리 만들기'였다.

한국갤럽이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,214 명에게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분야 과제를 묻은 결과(2 개까지 자유응답) '일자리 창출/실업문제 해소'가 45%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.

그 다음으로는 '물가 안정'이 39%, '경기 활성화' 27%, '빈부격차/양극화 해소' 21%, '부동산 안정' 16% 순이었다.

▶ 현 정부의 경제 분야 우선 과제는? (단위: %)



질문) 귀하께서는 경제 분야의 과제 중 현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요? (2 개까지 자유응답)

경제분야 우선 과제 응답에는 각 계층별로 처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.

- '일자리 창출'을 희망하는 사람은 취업을 앞둔 20 대(57%), 대학생(67%)에서 가장 많았고 또한 은퇴 연령인 50 대(48%)에서도 많았다.
- '물가 안정'은 여성(45%)에서, 주부, 블루칼라(각 47%)에서 많이 응답됐으며
- '경기 활성화'는 자영업자(43%)가 특히 우선 과제로 꼽았다.

- ‘빈부격차/양극화 해소’는 20 대(28%), 대학생(36%)에서 가장 많이 응답됐다.
한편 주관적 생활수준에서 상/중상층(33%)이 가장 희망해
정책을 희망하는 사람과 수혜를 받는 사람이 다른 현상을 보였다.
실효성 측면에서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.
- ‘부동산 안정’은 30 대(26%)가 가장 희망했는데
이들은 최근 가격 상승한 소형 전세 주택의 주 수요층에 해당한다.

▶ 현 정부의 경제 분야 우선 과제는? (응답자 특성별 - 상위 5위, 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일자리 창출/ 실업문제 해소	물가 안정	경기회복/ 경제활성화	빈부격차/ 양극화 해소	부동산 안정
전체		1,214	45	39	27	22	16
성별	남성	601	41	33	29	25	15
	여성	613	49	<u>45</u>	25	19	17
연령별	19~29세	221	<u>57</u>	<u>40</u>	21	<u>28</u>	11
	30대	246	41	39	21	<u>23</u>	<u>26</u>
	40대	266	43	38	33	22	14
	50대	231	48	37	31	20	15
	60세 이상	250	39	42	27	18	13
직업별	농/임/어업	37	38	37	20	29	9
	자영업	174	40	33	<u>43</u>	18	15
	블루칼라	159	41	<u>47</u>	26	29	11
	화이트칼라	371	46	<u>35</u>	24	23	19
	가정주부	266	43	<u>47</u>	26	15	21
	학생	97	<u>67</u>	37	15	<u>36</u>	8
	무직/기타	111	44	36	25	20	11
주관적 생활수준 별	상/중상	122	46	29	29	<u>33</u>	17
	중	448	48	41	27	20	18
	중하	363	45	40	26	22	16
	하	264	40	38	28	21	13

현재 우리나라 경기는?: ‘나쁜 편’ 77%, ‘좋은 편’ 4%

요즘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해 물은 결과

‘좋은 편이다’ 4%, ‘나쁜 편이다’ 77%, ‘보통’ 15%, ‘모르겠다/응답거절’ 2%로

현재의 경기(景氣)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.

현재 경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010 년(57%)부터 계속 악화되어

올해 들어서는 80%에 이르렀으나 1 월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(1 월: 81% → 4 월: 77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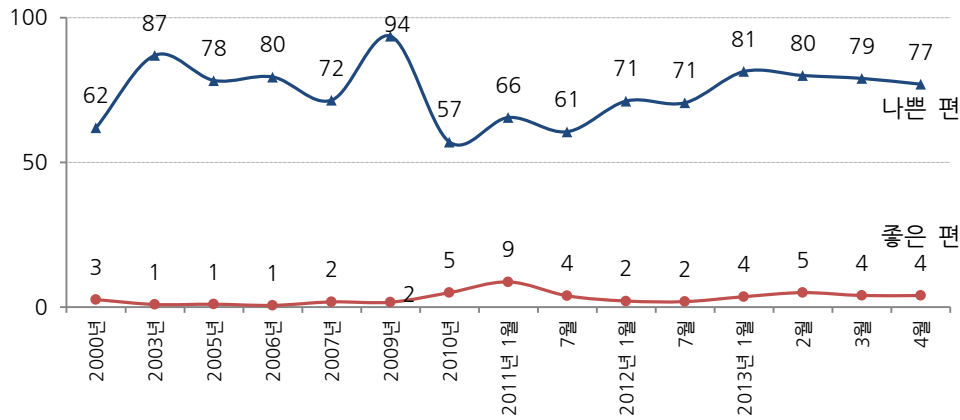
경기가 좋은 편에서 나쁜 편의 비율을 차감한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

- 연령별로는 20 대(35)와 60 세 이상(38)에 비해 30/40/50 대(22/19/21)의 경기평가가 낮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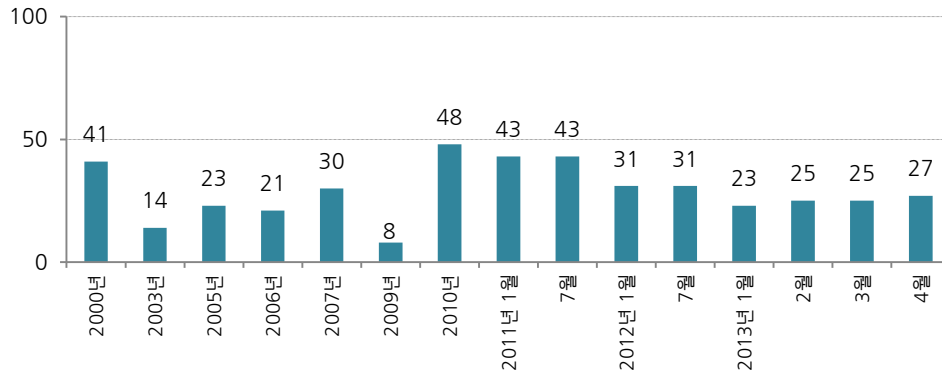
- 직업별로는 학생(41), 무직/기타(41)의 경기 평가가 높고

경제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자영업자(15)의 경기 평가가 가장 낮았다.

▶ 요즘 우리나라의 경기는? (단위: %)



- 평가지수(좋은 편-나쁜 편+100)



질문)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, 즉 경기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,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▶ 요즘 우리나라의 경기는? (2013년 4월, 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좋은 편	보통	나쁜 편	모름/ 응답거절	평가지수
전체		1,214	4	17	77	2	27
성별	남성	601	5	18	75	1	30
	여성	613	3	16	79	2	24
연령별	19~29세	221	6	21	71	3	35
	30대	246	2	18	80	-	22
	40대	266	3	13	84	1	19
	50대	231	3	13	82	1	21
	60세 이상	250	7	20	69	4	38
직업별	농/임/어업	37	5	18	76	-	29
	자영업	174	2	11	87	-	15
	블루칼라	159	4	13	82	1	22
	화이트칼라	371	2	19	77	2	25
	가정주부	266	4	15	78	3	26
	학생	97	7	25	66	2	41
	무직/기타	111	10	18	69	3	41
주관적 생활수준 별	상/중상	125	5	24	69	1	36
	중	398	4	17	77	2	27
	중하	405	4	16	79	1	25
	하	272	3	16	79	3	24

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?: '좋아질 것' 38%, '나빠질 것' 19%로 낙관이 비관보다 많아
- 두 달 연속 전망지수 하락(129 → 121 → 119) -

현재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대부분이지만

향후 전망에서는 '앞으로는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'이라는 낙관 전망이 더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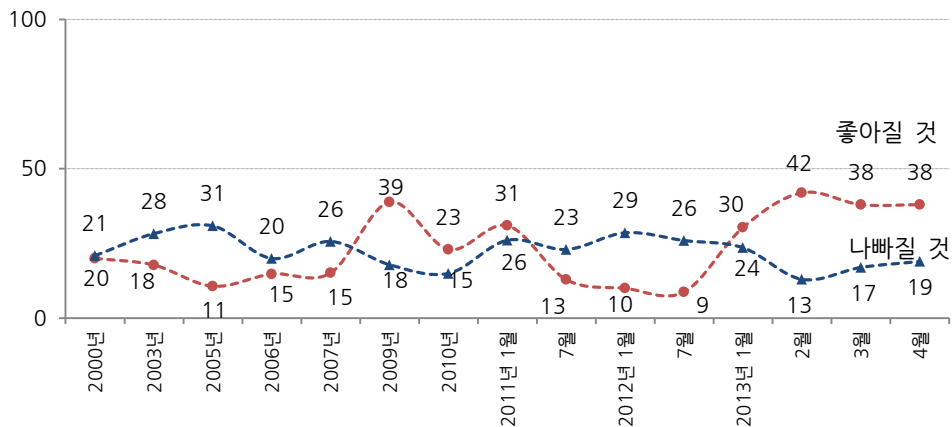
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묻은 결과 '좋아질 것' 38%, '나빠질 것' 17%, '비슷할 것' 36%,
 '모르겠다/응답거절' 7%로 경기 전망은 낙관이 비관의 두 배를 넘었다.

올해 들어 낙관 전망이 크게 상승했으나 2월(42%) 이후부터 소폭 하락하는 추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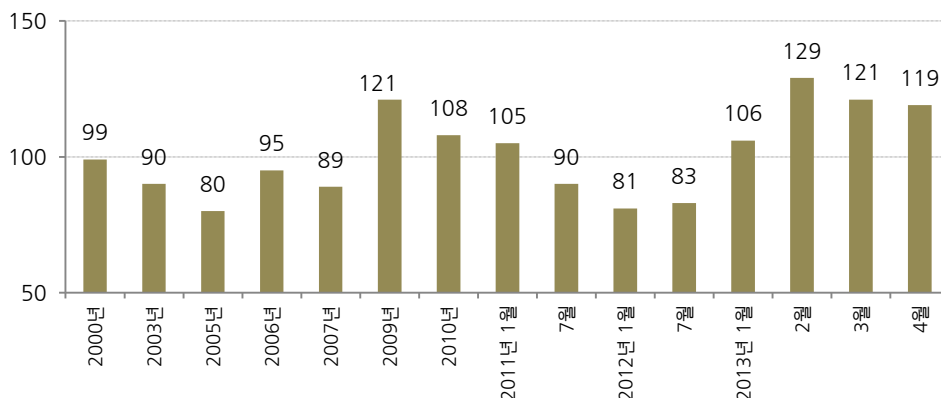
낙관에서 비관을 차감한 전망지수 기준에서 보더라도

129 → 121 → 119로 전망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.

▶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? (단위: %)



- 전망지수(좋아질 것-나빠질 것+100)



질문)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,
 나빠질 것이라고 보십니까, 아니면 비슷할 것이라고 보십니까?

▶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면? (2013 년 4 월, 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좋아질 것	비슷할 것	나빠질 것	모름/ 응답거절	전망지수
전체		1,214	37	37	19	7	119
성별	남성	601	40	33	21	6	119
	여성	613	36	40	17	8	119
연령별	19~29세	221	28	50	20	2	108
	30대	246	28	45	25	3	103
	40대	266	38	37	19	6	119
	50대	231	38	31	22	8	116
	60세 이상	250	55	21	8	16	147
직업별	농/임/어업	37	44	24	16	16	128
	자영업	174	39	31	23	7	116
	블루칼라	159	41	29	23	8	118
	화이트칼라	371	35	41	19	4	116
	가정주부	266	39	36	15	11	124
	학생	97	30	56	15	-	115
	무직/기타	111	43	27	18	11	125
주관적 생활수준 별	상/중상	125	37	37	24	2	113
	중	398	39	40	15	6	124
	중하	405	34	40	19	7	115
	하	272	39	27	21	12	1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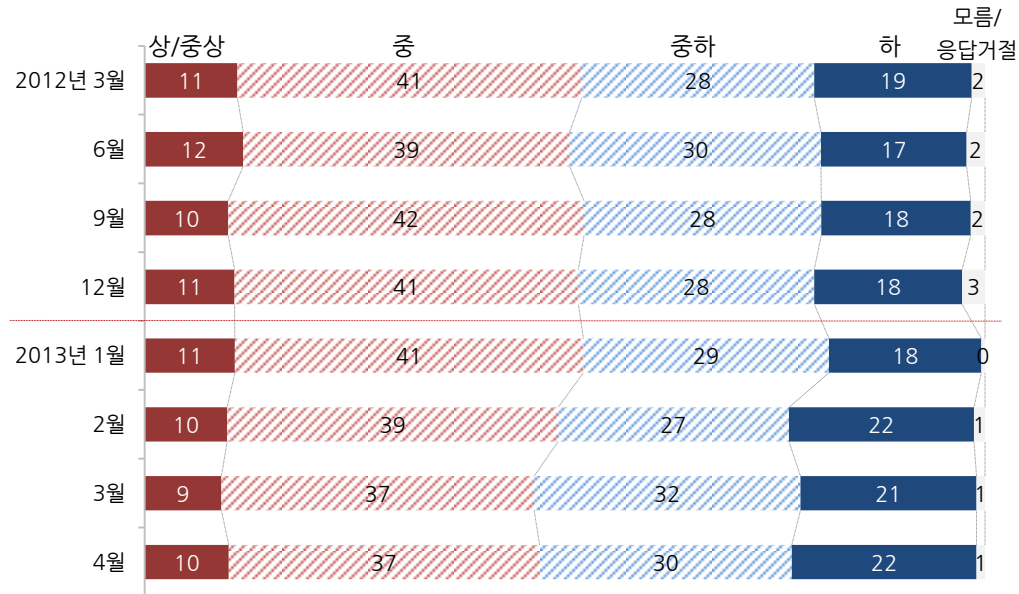
주관적 생활수준은?: '상/중상층' 10%, '중층' 37%, '중하/하층' 52%

주관적 생활수준을 묻은 결과 '상/중상층'이 10%, '중층' 37%, '중하층' 30%, '하층' 22%로 국민 절반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하층 또는 중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열 명 중 두 명은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생각했다.

작년에 비해 하층이나 중하층으로 자평하는 비율이 소폭 상승해 3월 조사부터 50%를 넘었다.

스스로 하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 60 세 이상 36%가 하층이라 생각했다. 직업별로 농/임/어업(37%), 블루칼라(37%), 무직/기타(40%)에서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다.

▶ 주관적 생활수준은? (단위: %)



질문)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상, 중상, 중, 중하, 하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면
귀 닥의 생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▶ 주관적 생활수준 (2013년 4월, 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상/중상	중	중하	하	모름/ 응답거절	중하+하
전체		1,214	10	37	30	22	1	52
성별	남성	601	10	34	31	24	1	55
	여성	613	10	40	28	20	2	48
연령별	19~29세	221	14	49	23	14	-	37
	30대	246	9	41	34	16	-	50
	40대	266	9	36	36	17	1	53
	50대	231	12	33	28	25	1	53
	60세 이상	250	7	27	27	36	4	62
직업별	농/임/어업	37	3	32	28	37	-	65
	자영업	174	10	36	30	22	1	53
	블루칼라	159	3	23	37	37	1	74
	화이트칼라	371	15	44	28	13	-	41
	가정주부	266	9	35	31	21	3	52
	학생	97	12	57	25	6	-	30
	무직/기타	111	7	24	27	40	3	66

여윳돈이 생긴다면?: ‘빚부터 갚겠다’ 31%, ‘저축/투자를 하겠다’ 53%

만약 여윳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용하겠는지 묻은 결과
 ‘빚부터 갚겠다’ 31%, ‘저축/투자를 하겠다’ 53%, ‘지출을 늘리겠다’ 12%로
 우리 국민 열 명 중 세 명은 여윳돈이 생기면 투자나 지출보다
 빚부터 청산할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.

빚부터 갚겠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/40대(37%)에서 가장 많았으며
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늘었다.
 반면 저축/투자를 하겠다는 응답은 20대(66%), 화이트칼라(61%), 학생(65%)에서
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았으며
 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60세 이상(19%)에서 가장 많았다.

▶ 만약 여윳돈이 생긴다면? (2013년 4월, 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빚부터 갚겠다	저축/투자를 하겠다	지출을 늘리겠다	모름/ 응답거절
3월 - 전체		1,218	31	56	10	3
4월 - 전체		1,214	31	53	12	4
성별	남성	601	33	51	12	4
	여성	613	29	55	11	4
연령별	19~29세	221	20	66	13	1
	30대	246	37	58	3	2
	40대	266	37	50	9	4
	50대	231	32	48	14	6
	60세 이상	250	27	45	19	8
직업별	농/임/어업	37	48	38	8	6
	자영업	174	39	46	9	6
	블루칼라	159	40	49	8	3
	화이트칼라	371	28	61	9	2
	가정주부	266	30	50	13	6
	학생	97	15	65	20	-
	무직/기타	111	27	45	18	10
주관적 생활수준 별	상/중상	125	19	57	21	4
	중	398	27	60	10	4
	중하	405	36	54	9	1
	하	272	38	40	14	8

질문) 만약 생각지도 않은 여윳돈이 생긴다면 다음 중 어느 것에 사용하시겠습니까?

(빚부터 갚겠다, 저축/투자를 하겠다, 지출을 늘리겠다)

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-3702-2571 dhjang@gallup.co.kr